

# 잠재성장률 수준 평가 및 대응방향

## 1. 검토배경

□ 2003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계속 5%에 미달함에 따라 정부가 제시하는 잠재성장률(5%) 달성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제기

\* 잠재성장률: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적정 성장률.

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시 인플레이션 등 거품이 생기고 낮은 성장시 노동·자본 등 생산요소들이 충분히 사용되지 못했거나 생산성 향상이 더디다는 의미임.

○ 민간연구소들은 우리 성장률의 한계가 이미 4%대로 떨어졌다고 분석

- 현실성 없는 목표 집착시 물가상승 등 부작용\* 유발을 우려

\* 현실과 괴리가 있는 잠재성장률을 목표로 할 경우 일반의 기대와 경제 현실간의 차이가 커지고, 세입전망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지는 등 무리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 있으며, 금리 등 여타 정책수단의 운용도 왜곡될 소지

## 2. 과거 성장추이 및 성장요인 분석

※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의 중장기(4~5년) 평균치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의 추이를 판단할 수 있음

□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7%대 수준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, 외환위기 이후 4%대로 하락

(GDP증가율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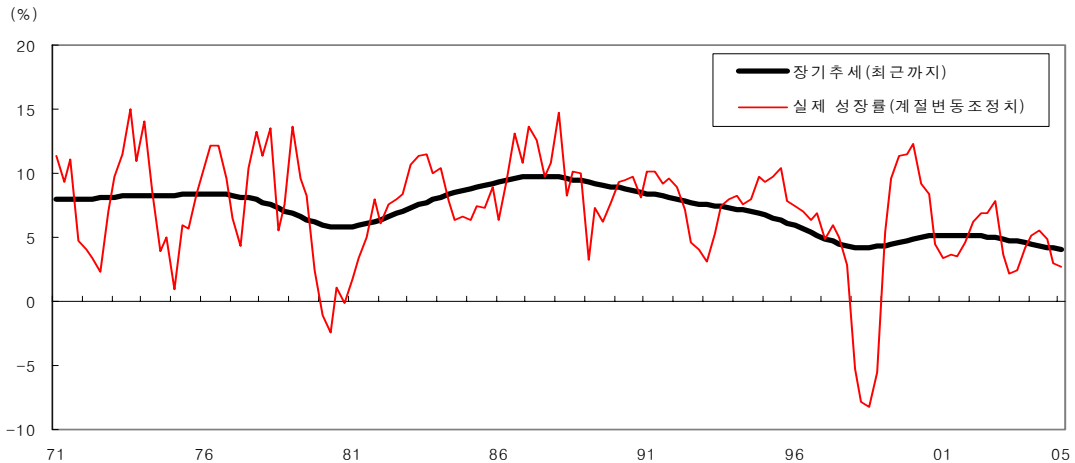
1970년대	1980년대			1990년대			2000년대
71~80	81~90	81~85	86~90	91~00	91~95	96~00	01~04
7.24*	8.73	7.82	9.64	6.08	7.81	4.38	4.63

\* 80년 오일쇼크(△1.5%)를 제외하면 71~79년 동안 연평균 8.26% 성장

□ 90년대 전반까지 7%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노동력, 높은 교육, 왕성한 투자 등 생산요소 투입규모의 증가와 빠른 생산성 향상에 기인

○ 90년대 후반 이후 성장률 하락은 투자감소와 노동투입 둔화에 기인

### < 실질성장률과 장기 성장추세 >



### < 성장요인 분석 결과 (KDI) >

(단위: %, %p)

기간	GDP 성장률	성장 기여도			
		취업자수	인적자본	물적자본	총요소생산성
1980~1985	7.53	1.23	0.87	3.08	2.35
1985~1990	9.06	2.59	0.70	3.47	2.30
1990~1995	7.19	1.66	0.97	3.15	1.41
1995~2000	4.75	0.49 <sup>1)</sup>	0.78	2.26	1.22
2000~2003	4.08	1.04	1.06	1.51 <sup>2)</sup>	0.47 <sup>3)</sup>

1) 외환위기 이후 취업자수 감소 2) 최근의 투자부진에 기인 3) KDI·삼성경제연구소는 기존전통산업의 경쟁력 약화·기업가정신 약화 등으로 생산성향상이 둔화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금융연구원은 동 기간동안 생산성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

※ 대부분 선진국의 성장률은 소득수준 증가와 함께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

- 특히, 국민소득 1만불 달성 이후 성장률은 2~4% 수준으로 둔화
- 국민소득 1만불 달성시기의 경제성장률: 미국 3.3%, 스웨덴 2.5%, 프랑스 3.9%, 영국 2.4%, 독일 1.8%, 이태리 2.4%, 일본 4.0%

## 3.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 및 평가

- 주요 기관들은 참여정부 임기중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4% 후반~5% 수준으로 추정

### < 주요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 >

(기간중 평균, %)

	잠재성장률	추정기간
KDI(04.12)	4.6~5.1%	2004~2010
한국은행(05.6)	4%대 후반	2004~2007
삼성경제연구소(05.6)	4.6%	2005~2010
금융연구원(05.6)	4%대 후반	2005

\* 잠재성장률은 측정방식·연구자의 기본가정·시기 및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수준을 추정하기는 어려움

□ 이들 기관들은 외환위기 이후 참여정부 이전까지 우리 잠재 성장률 수준을 5~6%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으나

- 최근의 ① 노동투입 둔화 ②투자부진 ③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 성장률이 4%대 중후반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

※ 잠재성장률 추정은 GDP를 ①노동 ②자본 ③총요소생산성의 세 요소로 나누어 이들 요소의 성장률 전망을 합쳐 계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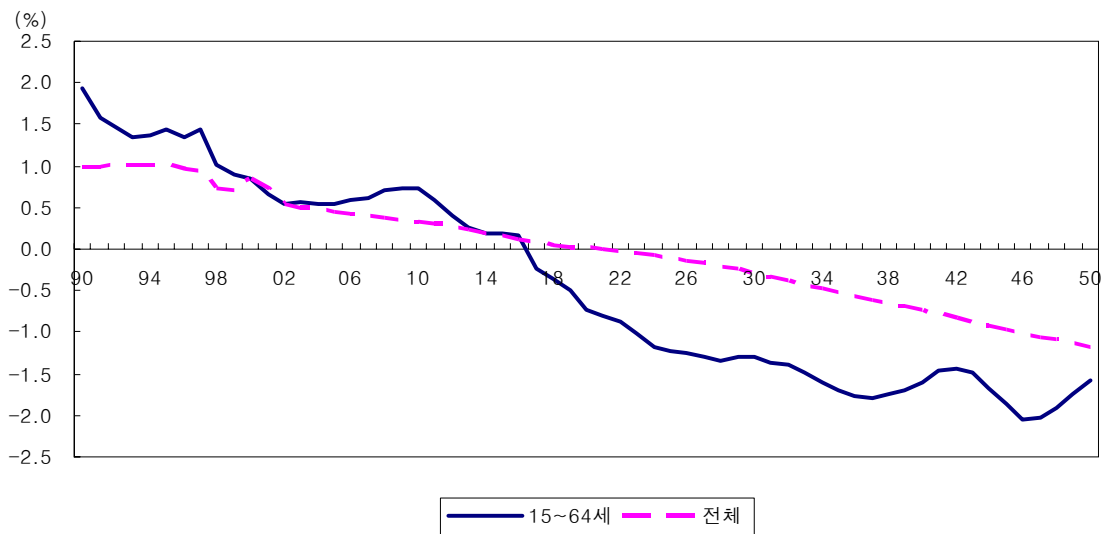
### ① 노동투입의 부진 원인: 인구노령화 · 근로시간 감소

- 인구노령화 ⇒ 생산가능연령인구(15~64세 인구) 증가세 둔화 ⇒ 경제활동인구 증가세 둔화

\* 1987~1996년의 기간동안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2.83% 증가하였으나 2000~2004년에는 연평균 1.53%증가로 1.3%p만큼 둔화

- 인구노령화는 2010년까지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겠으나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불리한 요인이 될 전망

< 총인구 및 생산가능연령인구의 증가율 추이 및 전망 >



- 근로시간 감소: 1987~1996년 週當 48.4시간→2000~2004년 46.4시간

⇒ 주40시간 근무제가 5년에 걸쳐 정착되어 주당 근로시간수가 4시간 이상 더 감소하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은 매년 0.9%p~1.1%p 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(금융연)

- ※ 노령화 · 근로시간 감소는 인구통계학적 · 추세적 요인으로 서 정책을 통한 중장기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는 부분

## ② 자본축적의 부진 원인: 국내 설비투자 부진

- 1987~1996년에는 자본축적에 의한 경제성장이 연평균 4.92%p였으나 2000~2004년에는 평균 2.23%p로 크게 둔화(금융연)
  - 개념定義상 投資는 곧 자본축적량의 증가와 일치하므로 자본축적 증가세 둔화는 최근의 국내 설비투자 부진 때문
-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경영행태가 ‘차입위주의 확장적 투자’에서 ‘채무구조 개선 위주’로 변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차입금 상환이나 유동성 확보를 중시하고 설비투자에는 소극적이 된데 기인
  - 사상 최고의 현금보유 규모, 사상 최저수준의 부채비율 등 기업의 자금사정이 최근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자금이 계속 기업내에 묶인채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

	1997	1998	2000	2001	2002	2003	2004
상장기업 설비투자/영업이익 비중(%)	149.5	129.7	91.4	91.5	58.9	71.4	68.6
제조업 현금보유비율(=현금/총자산, %)	6.4	6.5	5.9	6.0	8.1	9.7	9.9
제조업 부채비율(=부채/자기자본, %)	424.6	336.4	221.1	195.6	144.7	131.3	114.0

-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도 내수 등 수요부진으로 인해 마땅한 국내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

\* 제조업 투자부진 사유(산은조사, 05.3): 수요부진 41.9%(내수부진 36.7%, 수출부진 5.2%), 기존 설비과잉 18.4%, 자금조달난 13.1%

### <국내 설비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추이 >

	2001	2002	2003	2004
설비투자(조원) (전년대비증가율, %)	68.2 (△8.1)	71.3 (4.5)	69.3 (△2.7)	71.9 (3.7)
해외직접투자(조원) (전년대비증가율, %)	5.1 (1.6)	3.6 (△28.9)	3.9 (7.2)	5.8 (50.0)

※ 투자부진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중장기적 현상이나, 정책적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

## ③ 총요소생산성: 정체 가능성 높음

- 정보화·기술혁신·고부가가치화 진전으로 생산성의 꾸준한 증가를 전망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

- 기술혁신이 반도체·통신 등 일부분야에만 편중되어 있고 서비스업 생산성은 아직 낙후되어 있으며 기업가정신(entrepreneurship)이 계속 약화됨을 지적하며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
  - \* KDI는 대외개방, 시장경쟁 확대, 법질서 유지, 부패척결, 공공부문 개혁 등 사회하부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경우 총요소생산성이 2010년까지 연평균 2.0%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수준 유지시 생산성 증가는 1.5%에 그칠 것으로 추정
-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2%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가 없음을 감안시 꾸준한 증가를 낙관하기는 어려움
  - \* 1960~90년 기간동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미국·캐나다 0.4~0.5, 프랑스·독일 1.5, 일본·이태리 2% 하회

## 4.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

### ① 잠재성장률 수준의 하향 조정 여부 판단

- 최근의 성장세 둔화·투자부진·고령화 및 연구기관 추정결과 등을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은 일단 낮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보임
  - 그러나 잠재성장률 전망은 추계의 전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
    - 연구기관들의 추정 잠재성장률이 다소 하락하였어도(4.5~5%) 현재의 5%에서 크게 벗어난 수준은 아니며,
    -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노력에 따른 가변성도 있다고 판단
- ⇒ 규제완화와 기업투자 환경 개선 등 성장활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
- \* 아일랜드의 경우 외국자본 유치 등 유럽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으로 선진국이면서도 연 8% 수준 성장 지속

### ②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

#### (i) 인적요소 공급의 확대

- 단기적으로는 현재 유휴 인력이 많은 상황이므로 경기 조기회복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(노동수요 측면)

- 여성·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 노동공급의 잠재력 확대
  - 출산장려금, 보육비 지원 등을 통한 출산율 저하를 방지

## (ii) 투자 확대

- 토지 규제합리화, 환경과 개발과의 조화, 기업활동 저해요인 제거 등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선진화 등 투자 저해요인 해소
- 서비스 부문의 규제 완화와 개방 가속화, 부품소재산업의 발전, 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 투자 저변을 확대
-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, 대외협력 강화,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강화 등 통해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

## (iii) 중요소생산성 제고

- 이공계 인재양성, R&D 시스템 효율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·발전
- 시장중심적 제도개선, 경쟁적 시장 구축, 금융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
- 농업·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 대해 개방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화